

“희년을 사는 사람들”(The People of the Jubilee)
누가복음 4:16-21 (Luke 4: 16-21)

1.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는 ‘수저 계급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어에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여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 돈을 기준으로 네 계급을 분류한 표입니다.

Recently a newly coined expression ‘Spoon Class Theory’ is widely used in Korea, which illustrates the intensified chasm among socioeconomic classes. This phrase is derived from the expression in English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different spoons of the socioeconomic classes based on the amount of asset or income of individuals.

수저 계급론 기준표



Spoon Class Theory Standard
Gold Spoon: class with assets over two million dollars or annual income \$ 200,000 or higher (top 1%)
Silver Spoon: class with assets over one million dollars or annual income \$ 80,000 or higher (top 3%)
Bronze Spoon: class with assets over \$ 500, 000 or annual income \$ 55,000 or higher (top 7%)

Clay Spoon: class with assets less than \$ 50,000 dollars or annual income \$ 20,000 or lower

주로 네 가지 수저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수저'와 '플라티늄수저'를 두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워렌 버핏 같은 거대 재벌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 아래에 '똥수저'를 두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것조차 없는 '무수저'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hile these major four are often used, some people add even 'Diamond Spoon' or 'Platinum Spoon' above 'Gold Spoon' to indicate the very few who were born in the billionaire families, such as Donald Trump or Warren Buffet. Likewise, expressions like 'Poop Spoon' or 'No Spoon' are also used to describe those below 'Clay Spoon' category, i.e., born in the families who make less than the lowest income.

여러분 중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도 있을 것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물고 태어난 수저를 바꿀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노력하면 은수저로 바꿀 수도 있었고, 금수저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가 지금은 금수저로 밥을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In this congregation, some of you may have been born with a gold spoon in your mouth and some of you with a clay spoon. The economic inequality is not a new phenomenon. In fact, it has existed all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The question is whether you can change the color of spoon by your efforts. In the past, it was possible. Although people were born with a clay spoon, they were able to change it to silver or gold one by working hard. Probably many of you must have experienced such a social mobility in your life.

지금 한국의 문제는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물고 나온 수저를 바꾸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계급론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풍요 속에서 놀고 먹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The problem in Korea nowadays is that changing the color of spoon is impervious however hard you work. Hence, the phrase 'Spoon Class Theory' is created to illustrate such an impasse. Some enjoy wealth and prosperity without much effort from birth to death, while others have to suffer in poverty all throughout their lives. In addition, most likely the same status is passed down to their children. In the past, getting out of rags with your own effort was possible;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now.

상위층 혹은 기득권자들에게는 이런 현실에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면, 하위층 사람들에게 이런 현실은 절망의 원인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 놓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그보다는 낫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어메리칸 드림'의 핵심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수저를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For the haves and the privileged, nothing seems wrong with this. Rather, they would like to maintain their status as it is. On the other hand, for the have-nots, such reality is the cause of despair. It robs them of the hope to try their best in life. This is what is going on in Korea nowadays. Reality in US may seem a little bit better, however, it's getting worse. The essence of American Dream, which has been the pride of the American society, is that everyone is given an equal opportunity which makes each one's dream come true. However, the spirit of American Dream has been vanishing rapidly nowadays.

2.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the Jubilee Laws)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주일이 끝나는 제 칠일은 '안식일'(the Sabbath)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 일곱번째 해를 '안식년'(the Sabbatical Year)이라고 부릅니다. 안식년에는 개간하던 땅을 쉬게

해 줍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 안식년이 일곱번 반복되고 나서 오는 해 즉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the Year of Jubilee)입니다.

Considering such dismal reality, the law of Jubilee introduced in Leviticus chapter 25 is an amazing revelation. The seventh day of a week is called the Sabbath. People had to take a rest on this day, not doing any work but praising God and enjoying his grace with thanksgiving. In the same vein, the seventh year is called the Sabbatical year and this is the time when the land is allowed to have the complete rest. After seven cycles of the Sabbatical Year, the 50th year is called the Year of Jubilee.

영어 Jubilee 라는 말은 양의 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요벨'(yobel)에서 나왔습니다.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으로써 시작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복'을 의미하는 '禧'자를 써서 희년(禧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Year of Grace 혹은 the Year of Favor 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5 장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희년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사라진다.
- 모든 노예는 해방된다.
-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토지를 되돌려 받는다.

The word 'Jubilee' is originated from the Hebrew word 'yobel', which means the ram's horn. By blowing the ram's horn, the Year of Jubilee began. In Korean, we call the year of Jubilee 'Heenyen' and the Chinese character for 'Hee' means 'blessing'. In English, Jubilee is called the Year of Grace or the Year of Favor. According to Leviticus chapter 25, three things take place in the year of Jubilee.

- All debts are redeemed.
- All slaves are set free.
- The land is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

살다 보면 빚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할 때도 있으며, 과거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에는 그러한 매매가 허락되지만, 그 상태가 영구히 고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와 가난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회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는

희망일지 몰라도 다수에게는 절망입니다. 것처럼 희망 없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50년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희년법의 정신입니다.

In life people face the time to run into debt or even to sell their land. In the past of a slave system some people even had to sell themselves as a slave. According to the law of Jubilee, such a trading was allowed only for fifty years and it should not be continued beyond that. When such a trading continues, it would result in the class society where wealth and poverty is inherited to their children respectively. Such a society would be great to the privileged few but hopeless to the most. The law of Jubilee provides everyone a new start every fifty years, which will prevent a society from falling in despair and hopelessness.

- 만일 이런 법이 오늘 한국 혹은 미국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시행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좋겠다!" 싶습니까?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사는 사람들은 "어, 그러면 큰 일인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흙수저나 동수저를 가진 사람들은 반길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복된 해'가 아니라 '불행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희년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준 빚을 포기한다.
- 부리던 노예를 포기한다.
- 돈 주고 산 토지를 포기한다.

What would happen if such a law is practiced in Korea or in the U.S.? What would be your response? Some of you, if you identify yourself with those in bronze or clay spoon, may say, "That would be great!" and welcome such an idea. However, if you are having silver or gold spoon in your mouth, you may think "This is a big problem!" For the haves or the privileged, the year of Jubilee will be the year of misfortune because the year of Jubilee means to them as following:

To cancel out others' debts

To relinquish slaves that I bought

To relinquish others' land that I purchased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역사가들 사이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법이 실행되려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년법이 실현될 경우 그들에게는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핑계, 저런 구실로 피하고 미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고쳐지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It's been proven true by many historians that the law of Jubilee in Leviticus chapter 25 was never implemented in the history of Israel. Why so? For it requires the sacrifice of the haves with power and wealth. As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law has no benefit to them, it was continuously postponed with one excuse after another. This clearly shows that good laws and regulations are of no use at all unless the issue of the corrupt desires is resolved.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고귀한 희년법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어 희년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 중 하나입니다.

Although the holy law of Jubilee provided by God was not executed due to the greed of humanity, God gave a promise through the prophet Isaiah that He would make it happen by sending us the Messiah.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 part of the promise.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사 61:1-2)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LORD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bind up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and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Isa 61: 1-2)

여기서의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심판을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희년의 정신을 메시아가 실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In this passage, the pronoun 'I' refers to the Anointed One, or the Messiah. The prophecy is that the Messiah, who is anointed by the Spirit of God, would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The year of the Lord's favor is the year of Jubilee,

and the day of vengeance indicates the judgment of God. This implies that the Messiah would carry out the will of God behind 'the year of the Lord's favor', which had never been realized because of the human greed.

레위기 25 장에 규정된 희년은 빛과 토지와 노예에게만 국한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메시아는 희년의 정신을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시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난의 울무에서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포로된 사람들이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메시아는 모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While the year of the Lord's favor in Leviticus chapter 25 was limited to debts, lands, and slaves, the coming Messiah will carry out the year of Jubilee in every aspect of human life. The poor will rejoice as the Messiah will set them free from the chain of poverty. The brokenhearted will be restored as the Messiah will heal their wounds. The captives under false accusations will be set free and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People who mourn will rejoice. These are some examples of how Messiah will restore all things in the way they were originally created by GOD as He straightens all the distorted.

3.

우리는 지난 주 전교인 성경일독 진도에 따라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절반을 읽고 오는 주간에 나머지 절반을 읽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일독에 참여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일독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지속해야 하는 긴 마라톤인데, 부디 갈수록 함께 하는 교우들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영적 변화가 교인 개인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Last week we read the Book of Luke, following the reading schedule. We've read the half of the book and continue reading the remaining half this week. I'm thankful as the more time goes by, the more people join reading the Bible. And also I'd like to thank for various spiritual changes being occurred with reading the Bible. It is a long marathon that continues till the end of this year. I hope more brothers and sisters to participate in it, and each one of us and also this church experience spiritual changes.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작집으로 썼습니다. 후대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마가처럼 지리적인 구도를 따라

“순서대로”(1:3)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Luke, a fellow of Paul, wrote the Gospel of Luke and Acts, as sequence books, which made tremendous contribution for descendant churches. Luke wrote down the stories of Jesus based on geographical composition in order, similarly to what Mark did. So, the Gospel of Luk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1:1-4	서문	1:1-4	preface
1:5-3:38	준비 기간의 이야기	1:5-3:38	the story of preparation period
4:1-9:50	갈릴리에서	4:1-9:50	at Galilee
9:51-19:27	길 위에서	9:51-19:27	on the road
19:28-24:53	예루살렘에서	19:28-24:53	at Jerusalem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Beginning the story of Jesus’ public life, Matthew and Mark introduce his preaches into a sentence: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 4:17)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막 1:15)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Matt. 4:17)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4:17)

반면,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소개할만한 자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이 본문의 빛에서 읽어야 합니다.

However, Luke did differently. To Luke, there was a better material to introduce Jesus’ missionary works. It is the story in today’s scripture in which Jesus was preaching at a synagogue in Nazareth. This scriptu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whole book. All the stories recorded after this must be read in the light of this scripture.

당시 유대교 회당에는 고정된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회당의 운영을 맡은 회당장이 그 때 그 때 설교자를 초청했습니다. 설교자는 매 안식일에 지정된 본문을 읽고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At that time, there was no regular preacher in synagogues. The chief of the synagogue invited preachers whenever they needed. On every Sabbath day preachers read the appointed scripture and explained it briefly. The scripture we read today is the story about what happened when Jesus was invited as a preacher from a synagogue in his hometown.

예수님은 성경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61장 2절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두 표현 중에서 나중 것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서 앉으십니다. '심판의 날'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신 것도 이상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서 앉으신 것도 이상합니다.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Jesus; He read Isaiah chapter 61: 1-2. In the chapter 61 verse 2, out of two expressions, which are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Jesus did not read the second one. Then, he just sat down without saying a word. It is strange not to read "the day of vengeance" purposely, and it is also strange to go back and sit without a word.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Peopl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Jesus. At that moment, Jesus said to them as if he was waiting for the moment: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눅 4:21)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Luke 4:21)

알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대담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희년의 사건이 자신을 통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지금은 희년을 선포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In fact, it is an enormous sentence. And it is an audacious statement. It means that the messiah God would pour oil on and send is just Himself. It means that the incident that

was supposed to occur through the messiah is now occurring through Him. So, He omitted the word of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There will be the judgment from God in the future, now is the time to declare the Year of Jubilee. It is the meaning of all that will happen from now on.

4.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해 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 나라의 스승'**으로 그리고 있고, 따라서 제자들은 **'하늘 나라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깊어지는만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됩니다. 반면, **마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그리고 있고, 따라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나라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Let's review for a moment here. How did Matthew describe Jesus? He depicted Him as "the teacher in the kingdom of heaven," so that disciples should be "the students in the kingdom of heaven." As much as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kingdom of heaven get deeper, disciples become to live holy and righteously. Meanwhile, Mark described Jesus as "the Lord bearing the cross," therefore, disciples must be "people of the cross." The kingdom of heaven was revealed most vividly on the cross. People who know about the kingdom of heaven willingly bear the cross.

반면, **누가**는 예수님을 **'희년을 선포하신 메시아'**로 그리고 있고, 따라서 **제자들은 '희년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상태를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내면 상태를 회복시키시며 인간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으시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규정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오고 한 해동안만 지속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희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Luke portayed Jesus as "the Messiah who declared the Year of Jubilee," therefore, disciples should become those who live in Jubilee. Even though Matthew, Mark, and Luke used different expressions, but the contents are the same. Jesus came to this earth as the messiah and recovers the state to the one that God intended and designed. That is, Jesus realizes God's justice by restoring the inside of humans and straightening the distorted human society. The prescribed Jubilee in the book of Leviticus, chapter 25, comes every 50

years, and it lasts only for one year, but the Year of Jubilee that Jesus achieved would continue until it is completed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영원한 희년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죄에 관심을 두십니다. 희년법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the sin)입니다. 깨어진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범죄(the sins)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가장 먼저 다루셨습니다.

To realize the everlasting jubilee, Jesus focused on the human sins first. The reason for the year of jubilee was the human greed.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recovery that should occur to human beings is the relationship with God. The broken relationship is the si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broken relationship are the sins. All problems that human suffer resulted from the sin. Thus, Jesus started with human sin first.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면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동시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은 병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While Jesus takes care of the sick or heals those with an evil spirit, Jesus declares “your sin was forgiven.” Because of that, Pharisees and the scholars of laws are taken aback as they believe that no one else except God has authority to forgive sins. Jesus heals physical diseases and, at the same time, the root of the diseases. Healing only physical diseases without rooting out the matter of the sins, is like curing the symptom without removing the disease.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희년의 복음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과 세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무시 당하던 죄인들, 사마리인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자들을 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During the period of public life, Jesus was close to those who really wished the Gospel of Jubilee. Jesus visited foreigners treated like a dog by Judeans, women and tax collectors treated as a second citizen, sinners ignored due to being unable to observe laws, Samaritans, the poor, the handicapped and the sick. Then, many of those people gathered around Jesus. Pharisees and law scholars blamed Jesus. "If Jesus is a holy man, then how can he get along with those people?" Then, Jesus answered to the question.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눅 5:31-32)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Luke 5:31-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The words of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do not mean that there are the righteous who do not need to repent. There is no righteous one who does not need to repent in front of God. Those who think like that all rejected Jesus. Only those who conceded they are sinners recognized Jesus and came out to Jesus. They repented after listening to the words of Jesus.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새로와집니다. 내면이 새로와지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새로와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희년이 그 사람을 통해 바깥으로 영향을 발산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직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지고, 여가 생활도 달라집니다. 타락한 본성과 탐욕을 따라 살던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If a man repents and is reborn by the Holy Spirit, then the man's inside is renewed. With the renewed inside, then the person's thoughts and behavior are renewed. The renewed jubilee starting from a person's inside is radiated outward. Then, the attitude of

dealing with people and with his job is changed. The way of spending money and time is also changed. The lifestyle that followed the fallen human nature and human greed is changed to that following the God's will. Church is a place where such people gather. God changes the world through such community.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년이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이루어지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경제 구조가 망가지면 질수록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희년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eople, who did not accept that they were sinners, rejected Jesus. To them, Jubilee would be unpleasant. If the year of jubilee comes, they would have to give up all they have. They didn't want such changes. Rather, they wanted to possess more. The more the economic structure is distorted, the more they can have. So, they began to conspire to kill Jesus. So, it can be said that Jesus was killed by those who did not want to see the Year of Jubilee.

5.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희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희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만 살펴 보겠습니다.

The Gospel of Luke records the story of people who accepted the gospel of Jesus about the year of Jubilee and lived the year of Jubilee as a result. Let us look at the stories of two persons as examples.

먼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First, let us think about Peter. The Gospel of Matthew and the Gospel of Mark briefly describe a story of how Jesus called Peter and made him as his disciple, but the Gospel of Luke describes this in detail.

어느 날 시몬은 어부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날이 밝아오기까지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물을 씻어놓고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오시어 자신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 해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시몬은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5:4)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5절)

One day, Simon tried all night to catch fish with his fisherman friends but could not catch anything until the dawning. He cleaned the nets and was about to go home in the morning when Jesus came and taught people gathered ashore by using Simon's boat as a pulpit. Simon was probably listening to his message while mending the net. When Jesus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5:4) Simon sai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Verse 5)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 놓고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내려 놓고 얼마 있다가 그물을 만져 본 시몬은 깜짝 놀랍니다. 묵직하게 고기가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끌어 올리니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Maybe Simon felt something special as he was listening to what Jesus said. Otherwise, he would not have put aside his pride as a fisherman and let down the nets as told by a stranger. Sometime after letting down the nets with his friends, Simon touched the nets. He was surprised because they were heavy with fish. When they drew up the nets, two boats were filled with fish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Only then Simon came to himself. He suddenly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the following: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8절)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Verse 8)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죄성이 환히 드러나면서 압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Simon realized who Jesus was. Simon realized that he was standing before the holy Son of God. When he thought that he was standing before God, his sinful nature came into plain view and overwhelmed him. It is something that those who stand before the presence

of God would experience in common. So he fell down. He was not really asking Jesus to go away through this confession. It meant "Please forgive my sins." Then Jesus said to him: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0 절)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Verse 10)

예수님은 시몬의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내면을 새로 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희년의 사건이 그의 내면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시몬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를 물에 던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희년을 경험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삶이 어부로 성공하여 갑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Jesus accepted Simon's repentance. He forgave Simon's sin and promised that he would rebuild Simon's inside. The year of Jubilee began from Simon's inside. After that, Jesus gave him a new mission. Then Simon, with James and John,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Jesus, because he knew that a life of experiencing and proclaiming the year of Jubilee would be a much better life than succeeding as a fisherman and becoming rich.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고급 세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단 세리도 그러했으니 고위직 세리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하여 세리로 성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심하게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Now, let us think about the story of Zacchaeus in the Gospel of Luke, chapter 19. Zacchaeus was a chief tax collector. At the time of Jesus, tax collectors were people who exploited their own people under the auspices of power by Romans. Even a low-ranking tax collector was like that, so a chief tax collector would have been worse. Zacchaeus chose the path to succeed as a tax collector because he did not know any other path. Nevertheless, there was something that was not satisfied. He knew that his life was seriously wrong, but he had no idea how to fix it.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뒤죽박죽 인생을 고쳐줄 해법이 그분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은 그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Then he heard about Jesus. He was glad and went to where he was. But he could not meet Jesus because of the crowd. Jesus seemed to have a solution for his wrecked life, but he could not be reached. Zacchaeus' earnest heart compelled him to climb a sycamore-fig tree without even realizing it. Jesus looked up to see him and said to him that he would stay at Zacchaeus' house.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삭개오는 마음을 활짝 열고 희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 희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자신의 마음 안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When Jesus visited Zacchaeus, he fully opened his heart and accepted the gospel of the year of Jubilee. It occurred like a miracle. The year of Jubilee began in Zacchaeus' heart by staying with Jesus. He thought that he should not confine such grace in his heart. So he says the following: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눅 19:8)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four times the amount. (Luke 19:8)

고위직 세리로서 그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행해왔던 모든 잘못을 청산할 뿐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네 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He is saying that he will settle all the wrongs that he com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 as a chief tax collector and furthermore, pay back his previous wrongs four times the amount. Then Jesus says: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눅 19:9-10)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Luke 19:9-10)

6.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희망을 끌어 오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치유하고 우리를 통해 왜곡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This is the way to change the world. This is the way to bring hope to the world. The gospel of the year of Jubilee by Jesus is the true power that changes the world. This is the power that heals our corrupt human nature and transforms the distorted world through us.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수저계급론'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신이 태어난 경제적 환경을 바꿀 수 없기에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 혹은 '지옥불반도'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었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I introduced the 'spoon class theory' that is prevalent in Korea. Since young people in Korea cannot change their economic conditions into which they were born no matter how hard they struggle, expressions such as 'Hell Korea' or 'Hellfire Peninsula' are said to be rampant among them these days. One can feel how distorted the economic structure in Korean society is, as well as the desperation of people in there.

미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인 미국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끊임없이 사고를 쳐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회주의적인 메시지로 '정치 혁명'(political revolution)을 외치고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very different, either. How come the approval rating for Donald Trump does not drop in the presidential primaries these days despite his endless faux pas? How come Bernie Sanders calls for a 'political revolution,' i.e., a message of socialism that is not familiar at all in the US, and young people are enthusiastic with him? It reflects the profound desperation shared by the Americans.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기득권자들은 현상 유지(status quo)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혁명을 원합니다.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 많은 혁명이 지나갔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한 세대도 못 되어 혁명의 대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정치적 혁명도 한 세대를 가지 못합니다.

What shall we, as Christians, do in such a situation? The haves want the status quo and the have-nots want a revolution. Those who call for a revolution want to take things from the people who have them and lay claim to them. So many revolutions have occurred

in human history but they did not become a true solution. People who started a revolution degenerated into targets of revolution in less than a century. With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degenerated human nature, no political revolution will last a century.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믿지 않습니다. 희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타락한 본성을 고치고 그 사람을 통해 왜곡된 세상을 고치도록 만드는 희년의 복음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시몬처럼 죄성을 치유 받고 세상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변화됩니다. 삭개오처럼 죄성을 치유 받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하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희망이요 이 세상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revolution. They believe in the year of Jubilee. The gospel of the year of Jubilee, which infiltrates into people's mind to cure the degenerated human nature and changes the distorted world through these people, is the true hope. Because of people like Simon who are cured of their sinful nature and step forward to cure the sins of the world, the world is changed. Because of people like Zacchaeus who are cured of their sinful nature and change their lives to live honestly and righteously, the world resembles the look of heavenly kingdom. This is the hope for each of us, for this world, and the hope of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는 희년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살면서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이상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무엇입니까?

Dear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how far have you reached the year of Jubilee in the inside of you? What do you work for as you live your everyday life in your home or workplace? What ideal do you pursue in your life? What is your ideal world that you dream?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영원한 희년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피의 혁명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년을 이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It is the year of Jubilee. It is the eternal year of Jubilee that is realized in Jesus Christ. It should be realized more fully inside of us. For people who sincerely believe in Jesus Christ, neither defending the status quo nor promoting a bloody revolution should be their goal. We have to envision the year of Jubilee realized by Jesus Christ and live to realize it.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희년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 소명을 감사히 받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It will be fully realized whe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rrive. Until then,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every day and striving to realize the year of Jubilee in us and
through us is the holy calling that is given to us. I sincerely pray that the Lord's grace is
upon all those who embrace this calling with a thankful heart.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저희 안에 희년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희년을 이루는 도구로서
저희를 불러 주소서.
아멘.

Lord who proclaimed the eternal year of Jubilee,
We open our hearts and invite the Lord.
Realize the year of Jubilee in us,
And call us
As an instrument to realize the year of Jubilee in this world.
Amen.

<속회자료> 2016년 3월 13일 주일설교

"희년을 사는 사람들"(The People of the Jubilee)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10장(통 276)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레위기 25장 8-13절, 이사야 61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21절을 읽습니다. 세 성경 말씀을 연결지어 보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봅니다. (10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한국과 미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해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당신의 내면에는 희년이 얼마나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4) 당신이 하는 일 중에 희년의 실현에 관계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희년의 실현을 위해 당신이 더 노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6. 기도
 - 1)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희년이 실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 2) 한국과 미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502장(통 259)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